

공유경제시대에서 도서관의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역할 도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Library for Realizing Sharing Value in a Sharing Economy Era

노 영 희(Younghee Noh)*

정 대 근(Dae-Keun Jeong)**

노 지 윤(Ji-Yoon Ro)***

〈목 차〉

I. 서론	2. 공유경제의 유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공유경제형 도서관 서비스 도입 가능성
2. 선행연구	IV. 공유경제와 도서관
II. 공유경제의 배경	1. 공유경제와 도서관의 관계 도출 과정
1. 공유경제의 출현	2. 도서관의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2. 공유경제의 개념 및 정의	V. 결론 및 제언
III. 공유경제의 가치 및 유형 분석	
1. 공유경제의 가치 분석	

초 록

이 연구는 공유경제의 특징과 편익·가치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검토과정을 통하여 공유경제가 가지는 잠재력과 가치를 분석하고,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공유경제의 가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공유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유경제로부터 창출되는 가치를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커뮤니티 가치, 기술적 가치, 환경적 가치 등 5가지로 구분하여 공유경제의 잠재적 가치와 도서관의 역할, 기능, 가치가 유사함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공유경제시대에 도서관의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공유경제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서관의 물건, 공간 공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교육, 콘텐츠 공유, 커뮤니티 가치를 실현하는 도서관의 네트워크, 경험·재능 공유, 기술적 가치를 실현하는 신기술과 편리성의 공유, 그리고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서관의 친환경성으로 도출 및 제시하였다.

키워드: 공유경제, 공유경제 가치, 도서관 공유가치, 공유경제와 도서관, 도서관의 역할

ABSTRACT

The study aims to present function and role of the library in the age of sharing economy. For this purpose,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and review of the characteristics and benefits of the sharing economy, the potential and value of a sharing economy were analyzed and the role of libraries was compared and analyzed in terms of the value of a sharing economy. In this study, the values created from the sharing economy wer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Economic value, Social value, Community value, Technical value, and Environmental value, showing that the potential value of a sharing economy is similar to the role, function and value of a library. Based on this, it presented a function and role to realize the sharing value of a library in the era of a sharing economy.

Keywords: Sharing economy, Sharing economy value, Role of library, Sharing economy and library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제1저자)

**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 학술연구교수(jdk1319@jnu.ac.kr) (공동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rojyliy@gmail.com)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8년 8월 14일 •최초심사: 2018년 8월 27일 •게재확정: 2018년 9월 6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3), 133-168, 2018.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09.13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8년부터 본격 도입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는 경제·사회·환경 분야 등에서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며, ICT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의 특성으로 더욱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TIME(2011)지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경제의 대표적 특징인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선정하였으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스타트업의 70%가 공유 플랫폼 경제를 표방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단순히 소비자들의 소비형태 변화 또는 경제적 이익 추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자원의 본래 가치를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자원절약, 비용절감, 지속가능한 발전, 공동체의 복원과 활성화 등 경제적·사회적·커뮤니티·기술적·환경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환경 속에서 도서관은 과거부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Garlick(2014)는 공유경제에 있어 진정한 개척자는 도서관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의 경우 이용자들 간에 공유됨으로 인하여 그 가치는 무한하게 높아지고, 효율성 또한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도서관 공유경제 모델과 현 공유경제비즈니스모델(Uber, Peerby, AirBnB 등)의 유일한 차이는 배포매체와 기초자산의 공공적인 소유권이라고 하였다. Mies(2014) 역시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는 도서관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도서관협회(2015)는 공유경제를 미래도서관의 트렌드 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소개하는 등 공유경제가 도서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도서관 트렌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공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설립부터 책을 바탕으로 정보와 공간 등을 이용자와 공유·대여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와 동시에 도서관 서비스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도서관 간, 관련 기관 간 협업과 협동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도서 뿐 아니라, 물건 공유, 주차장, 세미나실 등의 공간 공유, 상호대차서비스, 참고서비스 등의 지식정보 공유 등을 통해 공유경제를 오래전부터 실현하고 있다. 즉, 도서관은 공유경제의 가치를 이미 추구·실현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 공유경제형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와 도서관 사이의 개념 간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공유경제의 경제적·사회적·커뮤니티·기술적·환경적 등의 가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의 특징과 편익·가치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검토과정을 통하여 공유경제가 가지는 잠재력과 가치를 분석하고, 도서관의 역할을 공유경제의 가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유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의 가치 및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공유경제에 관한 연구는 공유경제의 개념, 동향, 사례연구 등과 같은 공유경제의 이론적 고찰과 다면적 효과 또는 가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 왔다. 먼저,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보면,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공유경제가 주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고운승 2014).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해결과제로 사회적 인식, 신뢰형성, 법제도마련,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개발, 사물인터넷 분야 연구를 언급하였다. 라준영(2014)은 공유경제의 사례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셰어하우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주(WOOZOO)’의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재무적인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복제·확장이 용이한 모델이며, 따라서 플랫폼형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하여 셰어하우스의 영역을 노인, 도시빈민 등으로 확장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Gold Lorna(2010)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대안적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공유경제를 개념적으로 연구하였고, Cusumano(2015)는 전통적 기업들이 인터넷 기반의 공유기업 스타트업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가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제안하였다. 강병준, 최무현(2013)은 공유경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 공동체주의, 공유가치창출, 협력적 소비, 전망이론에 대해 언급했다. 공유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성공 모델의 개발, 공유경제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 인식 개선, 정부차원의 신뢰와 평판 시스템의 구축, 관련 법·제도의 지원과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목한(2015)은 공유경제의 특성을 개괄하고 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른 다양한 비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이를 토대로 국내 공유경제 도시에서의 도시정부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Juho, Mimmi와 Antti(2016)는 협력적 소비의 참여 동기에 자기결정성 이론을 적용하여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내부적 요인으로 환경유지 가능성, 즐거움이 해당하며, 외부적 요인에는 외부적 평판, 경제적 이익 등으로 구분하였다. 실증적 분석에서는 설정한 가설에 따라 각 요인들에 대한 협력적 소비의 긍정적인 태도 형성과 실제적 행위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협력적 소비 참여로 인한 환경유지 가능성, 즐거움은 긍정적 태도 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즐거움, 경제적 이익이 궁극적으로 참여 행위로 이어지는 중요한 참여 동기로 나타났다.

또한 공유경제 관련 정책 과제 제시, 공유경제 관련 법률 및 규제 연구(Malhotra and Van 2014; Cannon and Summers 2014; Rauch and Schleicher 2015)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공유 주차장의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이광훈 2014)가 있으며, 또한 차량 및 숙박 공유 중심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이성엽 2016). 연구를 통해 전통산업과 경쟁하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로 공유경제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를 재검토·수정하여 이들을 제도권내로 수용하는 방향을 검토하되 그 외

소규모의 개인적인 공유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Wait and See’ 전략 내지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라는 ‘Negative’ 규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공유경제에 대한 실증 연구(Hamari et al. 2016; 신수진 2016; 주덕 2016; 김기연, 김홍규 2013) 등도 이루어졌는데, 카셰어링 이용도에 대한 지역적 요인특성을 분석한 연구(최현수, 박준태 2014), 지역별 카셰어링의 수요분석을 통한 잠재이용수요와 이용 통행량에 대한 추정과 분석을 수행한 연구(박준식 외 2013)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네트워크, 디지털 기술, 사물인터넷 등 ICT를 기반으로 하여 공유경제를 재조명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김경호(2016)는 4차 산업시대에서 사람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은 여가시간을 이용해 재미와 문화 향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치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여행을 더욱 즐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과 함께 이익을 나누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더욱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 외에도 ICT 발달에 따른 공유경제의 해결과제와 전망에 대한 연구(고윤승 2014)와 ICT 기반의 지역 공유경제형 사회적 기업사례에 대한 연구(노태협 2016) 등이 수행되었다.

도서관계에서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연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영희(2016)는 공유경제가 도서관과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공유경제의 핵심모델로서 도서관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공유경제의 실현을 위해 도서관은 무한상상실 및 스마트워크센터 기능을 하는 장소 및 공간의 공유, 도서관의 각종 자원은 물론 리틀프리도서관을 통한 물품의 공유, 그리고 참고서비스 및 각종지식의 공유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도서관에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도서관은 수세기 동안 정보 및 도구를 공유해 온 공유경제의 성공적 모델로서 도서관이 공유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고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사서라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경제의 이해와 가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이를 적용한 사회의 공유 플랫폼 구축과 개선 사항 도출, 활성화 방안 제시에 관련한 선행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유경제에 대한 출현배경, 개념 정의에 대한 소개를 사례 분석 방법으로 연구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둘째, 공유경제 관련 연구는 관광, 도시, 교통, 공간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 패션, 도서관 등에 대한 주제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는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폭넓은 학문분야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공유경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이론적 측면, 사례 측면, 법률 및 규제 측면, 실증 연구 측면, ICT 또는 4차 산업혁명 측면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유경제와 도서관의 명확한 관계 규명을 바탕으로 공유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의 역할과 가치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공유경제와 유사한 도서관 서비스가 이미 수행되고 있는지, 또는 공유경제를 통해 도서관이 발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를 수집·분석하여 공유경제의 잠재력과 가치를 도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공유경제시대에서 도서관의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제시를 한다는 점에 선행연구와 차별적 가치가 있다.

II. 공유경제의 배경

1. 공유경제의 출현

공유경제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 활동인 품앗이나 아나바다 운동 등에서도 그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공유경제는 역사적으로는 이탈리아의 포콜라레(Focolare)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공유경제의 출현배경은 크게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기술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공유경제 성장 배경 원인을 들 수 있다(Owyang 2013).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세계 기업 경기는 하락하고 개인의 가계소득과 소비력이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기업 저성장, 실업 및 취업난은 소비 형태를 경쟁적 소유와 과소비의 형태에서 필요한 만큼만 적정하게 소비하는 합리적인 소비 형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가계의 입장에서는 굳이 재화를 소유하기보다 필요한 만큼 이용하고, 낭비되고 있는 자원을 대여 또는 재판매함으로써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Botsman and Rogers 2010a).

둘째, 환경적 요인, 즉 친환경 트렌드이다.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통한 대량생산 및 소비로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과 환경오염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자원의 재활용을 기본개념으로 하는 버려지거나 이용률이 떨어지는 자원을 공유해 자원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공유경제의 많은 서비스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인구증가, 도시화, 자원고갈, 환경문제로 인한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공유경제라는 것이다(Rothenberg 2007).

셋째, 기술적 요인이다. 인터넷의 보편화와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플랫폼 비즈니스(Application)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등장과 성장은 공유경제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애플(Apple inc.)사의 'App Store'와 안드로이드(Android)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Google Play Store)'를 기반으로 하여 모바일 인터넷 중심의 IT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자가 골라서 구매하도록 하는 거래모델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누구나 쉽게 자원의 거래 및 구매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개인정보 습득 및 제공이 용이해짐에 따라 개인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전문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도 거래의 주체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만 이루어지던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일상생활로 확산되

는데 기여하였다. 즉, 공유자원들은 IT 플랫폼을 통해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나 거래가 가능하며,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자원이든 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권애라 2013). 이처럼 유희자원의 정보 확인, 신용정보확인, 온라인 결제 등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공유서비스 플랫폼 상에서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Owyang et al. 2014).

다음 <표 1>은 공유경제가 등장하게 된 요인을 다른 관점에서 제시한 연구로 세부적 요인을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관점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남승윤 2017).

<표 1> 공유경제 출현배경

경제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권 또는 유희 자산의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 경제적 유연성의 증가 • 소유에서 접근권으로서의 개념 이전 • VC펀딩의 유입
사회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밀집도 증가 • 지속가능성에 대한 동기 • 커뮤니티에 대한 욕구 • 이타주의
기술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 네트워킹 • 모바일 디바이스와 플랫폼 • 결제 시스템

출처: 남승윤. 2017. 디자인의 개념적 접근을 통한 국내 공유경제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2. 공유경제의 개념 및 정의

공유경제라는 개념적 어휘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의 저서 「REMIX」를 통해 최초로 언급되었다. 그는 경제를 상업경제(Commercial Economy)와 공유경제(Sharing Economy)로 구분하면서, 공유경제를 상업경제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즉 돈, 노동, 수요, 공업에 따라 작동하여 생산과 소비에 초점을 둔 상업적 경제와 달리 공유경제는 이미 생산된 재화를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로, 자원의 사용가치를 극대화하는 소비문화이자 경제 방식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그는 공유경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위키피디아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위키피디아가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브리태니커보다 방대한 지식을 쌓고 있지만, 만들어진 위키피디아에 대한 참여자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유경제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비용 등과 같은 경제적인 도구만으로 거래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Lessig 2008). 이런 측면에서 공유경제는 새로운 유형의 생태계라고 볼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터넷과의 결합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상업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가격적 요소라면 공유경제는 이와는 다른 사회관계가 동인이 된다. 전통경제와 공유경제는 <표 2>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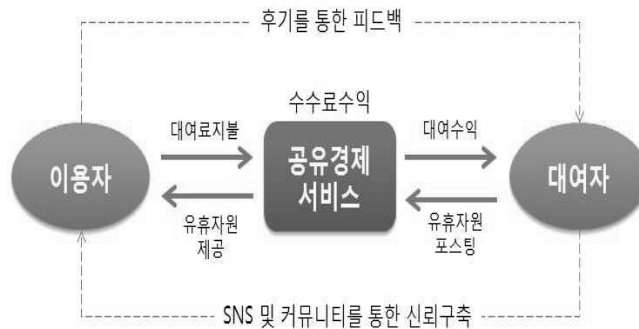
<표 2> 전통경제와 공유경제의 비교

전통경제	공유경제
소유	공유
자원고갈	자원절약
이윤창출	가치창출
경쟁	신뢰, 협력
과잉소비	협력적 소비
GDP(Price-Cost)	후생(Value-Cost)
시장	네트워크
집중화	분산화
Company+Consumer	People+Gig

패러다임의 변화
⇒

출처: 김형균, 오재환 2013 ; 이민화 2018 선행연구를 참조로 재구성함

공유경제는 한번 생산된 유·무형의 자원 제품을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여 기존 자원을 지속적으로 가치 있게 활용하는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방식으로서, 소유경제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려는 대안적 소비이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개념을 그림으로 제시한 클라우드산업연구소(2013)의 공유경제의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공유경제 모델 (출처: 클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공유경제의 비즈니스는 자원을 빌려주는 사람(제공자), 자원을 빌려 쓰는 사람(대여자), 그 둘을 중개하는 온라인 공유플랫폼(공유기업)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다. 기업은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람과 유휴 자원을 보유한 대여자와 자원이 필요한 이용자를 연결한다. 자원의 활용이 필요한 이용자는 공유경제 플랫폼에 존재하는 대여자의 자원 중 조건에 맞는 것을 고르고,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는 가격협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협상을 통하여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를 하게 된다. 결제 금액 중 공유업체는 10~20%의 수수료를 취하여 운영하며, 나머지는 대여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용자는 공유경제 플랫폼에 사용에 따른 후기를 통해 사용자에게 대한 만족도와 대여자의 신뢰수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대여자는 거래수익 확보와 자원판매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의 절약이 가능하며, 이용자는 유통마진이 제거된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기간만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대여자의 신뢰와 플랫폼에 남겨진 이용자의 후기, 자원 대여자와 자원 보유자간의 공유된 상호간의 후기를 통한 피드백과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공유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기술적으로 스마트폰 기술을 중심으로 ICT를 사용한다는 점, 경제적으로는 수요자인 경제라는 점과 새로운 생산이 아닌 기존의 유휴자원을 활용한다는 점, 운영에 있어서는 플랫폼을 매개로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와 다수의 이용자가 참여한다는 점, 그리고 SNS를 통한 이용후기 정보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레식의 정의 이후 국내외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공유경제는 <표 3>과 같이 정의되었다.

<표 3> 공유경제의 정의

연구자	정의
Botsman, Rogers (2010)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에 대한 접근권이나 사용권을 타인과 공유·교환·대여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경제시스템으로, 공유경제의 작동원리이자 핵심적 가치가 되는 ‘협력적 소비’를 바탕으로 함
Kim, Kim (2013)	여러 사용자가 자원을 공유하여 기존 자원을 지속적으로 가치 있게 활용하고, 소유경제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려는 대안적 소비라고 정의함
Matofska (2014)	인적, 물질 자원을 공유하는 사회-경제적 생태계(Socio-economic Ecosystem)를 만드는 것이며, 다른 사람과 조직에 의해서 공유의 창조(Shared Creation), 생산, 분배, 교환 및 용역의 소비를 포함함
김경호 (2016)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며, 현재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 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 경제 모델’을 말함
Rifkin (2011)	인터넷과 다양한 새로운 통신기술 덕분에 지구상 모든 인간과 인간의 신경 시스템의 연결 속도가 빨라져서 우리는 글로벌 소셜공간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세계 어디서나 동시에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게 됨
김형균, 오재환 (2013)	신뢰를 전제로 협력적 소비, 효율적인 분배, 자원절약의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인 활동이며, 물건이나 공간, 지식을 소유가 아닌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여 또는 교환하여 상호적인 편익과 적정의 이윤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이자 생활방식을 말함
권애라(2013)	공유경제를 기존에 생산된 활용되지 않는 재화나 지식·경험·시간 등의 무형자원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하고 차용하여 사용하는 경제개념이라고 정의하면서, 공유경제의 목적은 기존의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김갑환, 김학봉, 우창훈 (2017)	공유경제를 특정한 개인이나 조직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접근권이나 사용권을 타인이나 타 회사와 공유하고 교환, 대여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연결망(SNS)을 이용한 협력적 소비의 한 경제 형태로 정의함
강병진, 최무현 (2013)	공유경제와 사회적 기업은 핵심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원리를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공유경제는 공동체주의, 공유가치 창조, 협력적 소비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노영희 (2016)	공유경제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며, 공간, 물건,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편익을 증진하는 경제활동으로 정보통신기술과 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현명한 소비자들이 자신의 유휴자원을 공유하며, 신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경제활동임

공유경제 정의에 나타난 키워드를 살펴보면, 협력적 소비, 유휴자원, 신뢰, 전통적 경제(소유 경제)와 비교되는 개념, IT 기술과 소셜네트워크,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의를 기반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ICT와 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서비스 등 유·무형의 유희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기존의 자원이 창출할 수 있는 이용가치와 혜택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경제적·사회적·커뮤니티·기술적·환경적 측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공유경제의 가치 및 유형 분석

1. 공유경제의 가치 분석

공유경제의 편익과 가치를 분석한 Owyang(2013)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유경제가 주목 받는 이유를 경제·사회·환경·기술적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Botsman와 Rogers(2010a)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실질 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가계의 입장에서 굳이 재화를 소유하기보다 필요한 만큼 이용하고, 낭비되고 있는 자원을 대여 또는 재판 매함으로써 가치분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유경제의 경제적 측면을 이야기하였다. Rothenberg(2007)는 버려지거나 이용률이 떨어지는 자원을 공유해 자원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인구증가, 도시화, 자원고갈, 환경문제로 인한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해석하여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공유경제의 잠재력 및 가치에 따른 편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분석 및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공유경제의 가치를 경제적, 사회적, 커뮤니티, 기술적, 그리고 환경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첫째, 공유경제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치이다. 서비스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표 4〉 공유경제의 경제적 가치

공유경제의 가치	가치에 의한 편익	선행 연구
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이익 증대: 돈과 시간 절약, 가계경제 도움, 저렴한 사용 비용, 상품소비 절감 수요시장 수익증대: 저렴한 거래비용 수요자 수익성 개선 공급시장 수익증대: 유희자원을 통한 거래 수익 창출, 가계 부가수입 발생 자산의 활용도 상승: 물건 이용도, 시설 활용도 등 소유할 필요, 감소 새로운 일자리/비즈니스 기회(신규시장) 창출 	반정화, 박윤정(2015), 최청정(2017), Botsman and Rogers(2010a), 반정화(2016), 김형균(2013), 김점산, 지우석, 강상준(2014), 김은란 외(2015),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2조 1항, 엘릭스스테파니(2015), 강철구, 전소영(2017), One Earth(2015), 경기도(2014), 주강진 외(2016),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2017) 심수진(2016), 김윤경(2014), 조경복(2015), 전수연(2014), 차두원, 진영현(2015), 클라우드산업연구소(2013)

낭비될 수 있는 자원의 절약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면을 보임은 물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세부적으로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유희자원을 통하여 뜻밖의 거래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공유경제 플랫폼의 특성상 비전문가인 개인도 거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재화의 활용도가 상승하게 된다. 또한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소유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수요자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클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공유경제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언급한 연구는 다음 <표 5>와 같다.

둘째, 사회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유경제의 효과가 개인(참여자)에서 사회로 확장된 형태인 사회적 측면의 가치가 있다. 공유경제는 네트워크를 통한 대여 또는 교환하여 상호적인 편익과 적정의 이윤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이자 생활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교통문제, 주차문제, 재난대응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과 기여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약과 노동의 유연성 제고), 새로운 직업·사업모델 등장, 창업 고취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인복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과 지원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유경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기도 한다. 마케팅 투자여력이 미흡하여 경쟁체제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이 거래될 수 있는 장터를 제공하고, 플랫폼을 통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별도의 홍보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지역자원의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지역거주자들이 현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공유경제는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인구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활성화되지 못했던 지역경제에서 노인, 비취업자, 주부 등 비경제 인구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된다(클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셋째, 커뮤니티 측면에서의 가치이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측면의 하위 내용으로 커뮤니티 측면을 포함시켜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측면과 커뮤니티(관계적) 측면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참조하여 가치를

<표 5>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

공유경제의 가치	가치에 의한 편익	선행 연구
사회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교통문제, 주차문제, 재난대응, 교육 등 •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약과 노동의 유연성 제고), 새로운 직업/사업모델 등장, 창업 고취, 사회혁신 자극 등 • 취약계층 도움: 고가의 상품이나 독점적인 재능과 서비스의 공유 기회 제공, 노인복지, 소유에서 공유로의 전이에 의한 새로운 평등한 사회/경제/문화 구조 • 오프라인 이슈해결과 혁신 가속화 	반정화, 박윤정(2015), Owyang(2013), 반정화(2016), 김접산, 지우석, 강상준(2014), 김은란 외(2015),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2조 1항, 엘릭스테파니(2015), 강철구, 전소영(2017), One Earth (2015), 신은별(2016), 클라우드산업연구소(2013), 경기도(2014), 주강진 외(2016),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2017), 심수진(2016), 김윤경(2014), 조경복(2015), 최세정(2018), 전수연(2014), 김기연(2014), 성준호(2013), 이종원(2016), 양화동(2013)

도출하였다. 이는 최근 도서관에 대한 커뮤니티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상호적 네트워크를 통해 창출되는 가치 중 신뢰, 관계, 공동체, 가치, 의식 등의 요소를 사회적 측면의 가치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하나의 커뮤니티 가치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를 통해 커뮤니티들의 유대관계 형성에도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의미를 확장시켜 ‘사회적 교류의 장’, ‘정보 교환의 장’, ‘친밀함을 나누는 장’의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에 SNS의 급속한 진화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소비를 가능하게 하였고 가상공간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주는 사회연결망이자 정보교환의 장을 확대시켰다(김기연 2014). 또한, SNS를 통하여 사용자들 간에 경험공유나 평점을 참조함으로써 신뢰를 쌓게 되었고, 이는 공유경제의 가장 큰 장애요소였던 신뢰의 형성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양희동 2013).

또한, 공유경제의 커뮤니티 측면의 가치는 공유경제로 이윤을 추구할 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능동적 협력자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뢰와 연대의 누적을 통해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이를 통해 산업화 이후로 계속적으로 문제시 되어 왔던 해체되는 공동체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유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서로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얻으려고 노력한다(강철구, 전소영 2017). 즉 공유경제는 개인에게 융합을 통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여행 공유경제 플랫폼인 마이리얼트립은 현지인의 여행 가이드 서비스를 통해 여행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여행지에서 일반적으로 숙박하던 호텔 이외에 현지인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즐기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혹은 가치를 얻게 한다(차두원, 진영현 2015).

〈표 6〉 공유경제의 커뮤니티 가치

공유경제의 가치	가치에 의한 편익	선행 연구
커뮤니티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신뢰 향상, 공유(상품과 서비스 교류)를 통한 신뢰관계 구축 및 향상 • 커뮤니티(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관계 강화 • 공유의식 향상 • 공동체 의식, 사회적 가치 회복 • 개인에게 새로운 경험 제공 	심수진(2016), 차두원, 진영현(2015), 양희동(2014), 김기연(2014), 강철구, 전소영(2017)

넷째, 인터넷과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소셜공간의 시대가 더욱 활성화되는 환경 속에서 Rifkin(2001)은 공유경제는 더욱 널리 퍼져나갈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볼 때 공유경제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잠재력의 증대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술발전 환경에 부합함으로써 편의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은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사회적 네트워크와 실시간 교류를 가능케 한다. 이를 통한 데이터의 유용성은 교류를 아주 값싸고 쉽게 만들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재화와 서비스를 전달해 주고 있다. 이처럼 IT기술은 쉽고 편리하게 공유하게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인터넷, 웹2.0, 모바일 소셜네트워크 등의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정보비대칭성이 해소되고 거

래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져서 거래의 편의성이 기존보다 월등히 높아졌으며(Owyang et al. 2014), 그 결과 유희자원의 정보 확인, 신용정보확인, 온라인 결제 등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공유서비스 플랫폼 상에서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SNS의 급속한 진화는 사용자들 간에 자신의 경험 공유나 평점을 참조함으로써 향상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소비를 가능하게 하였고 가상공간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주는 사회연결망이자 정보교환의 장을 확대시켰다(김기연 2014). 또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요구되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공유경제의 기술적 가치는 공유경제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를 확산시키는 주요 요소로 Sundararajan(2014)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개인화,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반 플랫폼의 등장, 도시화와 세계화, 환경과 자원을 고려하였으며, 공유경제를 사람들이 재산, 자원, 시간, 기술을 유하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다. Woskow(2014)은 공유경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벌거나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서비스보다 더 나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인터넷, 온라인,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수단과 접목되어 참여 가능한 인원, 자원, 시간, 공간이 확대될 수 있었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IT의 발전을 토대로 개인 간 공유경제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SNS, IT플랫폼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이다. 공유경제 참가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을 두어 거래에 참여하고, SNS를 통하여 참가자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다(클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표 7〉 공유경제의 기술적 가치

공유경제의 가치	가치에 의한 편익	선행 연구
기술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웹3.0, 모바일 소셜네트워크 등 신기술의 환경을 기반으로 둔 비즈니스 모델 • 인터넷을 통한 접근성 향상, 온라인 이용향상, 스마트 디바이스 	Owyang(2013), 성준호(2013), 전수연(2014), Sundararajan(2014), Woskow(2014), 반정화(2016) 엘릭스스테파니 (2015), 최세경(2018), 클라우드산업연구소(2013)

마지막으로, 환경적 측면에서의 가치이다. 경제적 가치와 유사한 맥락에서 창출되는 가치로,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강조한 가치이다. 공유경제의 환경적 가치는 그동안의 소유경제에

〈표 8〉 공유경제의 환경적 가치

공유경제의 가치	가치에 의한 편익	선행 연구
환경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도시화, 자원고갈, 환경문제로 인한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 자원낭비 최소화, 자원절약 • 환경오염 방지(최소화), 환경보호 • 지속가능성, 친환경성 실천 	Rothenberg(2007), Owyang(2013), 「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2조 1항, 강철구, 전소영(2017), One Earth (2015), 경기도(2014),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2017), 심수진(2016), 김윤경(2014), 전수연(2014), 차두원, 진영현(2015)

따른 대량생산과 과잉소비, 지나친 이윤추구가 불러온 환경문제를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자원 이용과 '배분, 자원절약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를 환경친화적으로 재편하려는 사회적 욕구 등을 포함한다.

2. 공유경제의 유형

공유경제 자원은 공간, 교통수단, 물품 등 유형적인 것에서 지식, 경험 등 무형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공유경제 서비스 유형은 재화나 상품의 단기 임대 및 대여, 재화의 재활용 및 재분배, 지식과 투자의 공유 등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Botsman and Rogers 2010a).

첫째, 제품 혹은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이용가치만을 소비하는 제품 서비스 시스템(product service systems)형태이다.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이 재화나 상품을 단기임대 및 대여하는 방식은 재화나 상품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한 회사가 소유한 다양한 제품을 공유한다거나(카셰어링, 태양열 발전, 빨래방), 개인이 소유한 제품을 공유하거나 대여하는 방식(Zilok, Relayrides)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9〉 공유경제의 유형: 제품 서비스 통합 시스템

서비스유형 (제공서비스)	거래방식	참여자	공유자원	공유기업	
				국외	국내
제품 서비스 통합 시스템 (product service systems)	이용자들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 고 이용할 수 있는 방식	개별공급자와 다수의 사용자	자동차 셰어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ber • Lyft • Zipcar • Streetcar • GoG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쏘카 • 그린카
			자전거 셰어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elib • ofo • Barclays • Cycle Hi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클, • 서울바이크 • 푸른바이크 셰어링
			장난감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mDom • BabyPla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쏘시오 • 희망장난감도서관
			도서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gg • Zook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도서관책꽂이
			태양에너지 공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larCity • Solar • Century 	-

둘째,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물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재분배시장(redistribution markets)이다. 주로 중고물품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데, 경매, 물물교환시장, 무료/상품권 교환 등이 이에 속한다. 이의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모든 물품을 무료로 주고받거나 현금이나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 액세서리, 옷, 책, 장난감, 게임, 배넷저고리, DVD 등 비슷한 물품을 교환하는 것, 값어치가 비슷한 다른 물품과 교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표 10〉 공유경제의 유형: 재분배시장

서비스유형 (제공서비스)	거래방식	참여자	공유자원	공유기업	
				국외	국내
재분배시장 (redistribution markets)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개별공급자와 개별사용자	경매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ay • craigslist • flipp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션 • 지마켓 • 11번가
			물물교환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readup • Swapsty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플 • 열린옷장
			무료/상품권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ecycle • Giftf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브

셋째, 커뮤니티 내 개인 간의 협력을 통해 유·무형의 자원을 타인과 공유하는 협력적 라이프스타일(collaborative lifestyles) 형태이다(Botsman and Rogers, 2010b; Ko, 2014). 위키피디아나 클라우드펀딩 같은 지식과 투자의 공유 방식으로 제품 생산 시 아이디어를 협력하거나 자금을 협조하는 등 선택적으로 공유 및 협업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실 공유, 물품 교환, 과제와 시간 공유, 심부름, 기술 교환, 음식 나눔, 정원 공유, 주차장 공유, P2P 대출사이트, 여행 관련 공유 등이 이러한 형태에 해당한다.

〈표 11〉 공유경제의 유형: 공동라이프 스타일(협력적 커뮤니티)

서비스유형 (제공서비스)	거래방식	참여자	공유자원	공유기업	
				국외	국내
공동라이프 스타일 (collaborative lifestyles, 협력적 커뮤니티)	커뮤니티 내 개인(사용자) 간의 협력을 통해 여러 자산을 공유하는 방식	다수의 개별공급자와 다수의 개별사용자 (P2P)	숙박 공간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BnB • VRBO • onefinestay • HomeAway • couchsurf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엔비히어로 • 코자자
			주차장 공간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king Pan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어스페이스 (공간기부) • 모두의주차장
			사무 공간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Work • CospoT • LIQUIDSPACE • ShareDesk • DesksNearMe • Breather • pivotdesk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디어팩토리 • D.Camp • 상상우리 • 더히브 등
			택시 셰어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xi2 • TaxiDesk • TaxiStop 	-
			여행경험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ips(Lonely Pla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리얼트립 • 플레이플레넷
			지식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chStreet • TradeSch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즈돔 • 잇다
			구인구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osecubes • Desksnear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바몬 • 알바천국
			클라우드 펀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ckstarter • Indiego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앗펀딩 • 굿펀딩

출처: 김빛나 2018 ; 송순영 2015, 오이씨 2013 ; 김점산, 지우석, 강상준 2014 선행연구를 참조로 재구성함.

그 외에도 공유경제 서비스를 크게 공유주체에 따라 B2C(Business to Consumer) 모델과 P2P(Peer to Peer)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B2C 모델은 특정기업이 소유한 자산·제품을 이용자와 공유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기존의 렌탈 서비스와 같은 방식이다. 카셰어링(Zipcar), 온라인 인력중개업(oDesk) 등이 B2C 모델에 해당한다. P2P 모델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말한다. 즉, 플랫폼 업체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품을 소유한 사람과 이용자들, 즉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여 수령하는 중개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숙박 관련 서비스(Airbnb), 한옥대여 서비스(Kozaza), 자동차 관련 서비스(Getaround) 등이 있다. 다만, B2C의 경우 전형적인 공유경제 서비스라기보다는 전통적 비즈니스가 ICT 적용으로 보다 진화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Schor(2015)은 각 모델에 대하여 Profit 추구여부를 더하면 이익추구형(For-profit) B2P 플랫폼, 이익추구형(For-profit) P2P 플랫폼,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non-profit) B2P 플랫폼,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non-profit) P2P 플랫폼으로 4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공유자원별로 공유경제를 분류할 수 있다. 공유자원은 학자마다 여러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오이씨(2013)는 공간·물건·지식·교통 공유 등의 형태로 제시하였고, Gold Lorma(2010)은 물건·공간·경험·재능·시간·정보공유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Owyang et al. (2014)은 공유경제 대상에 따라 재화(중고재화, 대여제품, 주문제품), 서비스(전문서비스, 개인서비스), 교통(교통서비스, 대여운송), 공간(사무공간, 숙박), 금융(대부업, 크라우드펀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One Earth(2015)는 공유경제의 유형으로 교통수단공유, 공간공유, 상품·물품공유, 식품공유, 에너지공유, 커뮤니티공유, 정보 및 서비스 공유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강철구, 전소영(2017)은 교통수단 공유(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스쿠터, 요트), 공간 공유(여행자숙소, 주차장, 사무실·회의실, 기숙사, 레스토랑·카페, 연습실), 상품·물품 공유(유아용품, 장비, 기계공구, 도서, 스포츠용품, 가구, 장난감, DVD), 식품공유(유희음식, 농장), 에너지공유(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에너지), 커뮤니티 공유(물물교환시장, 마을잔치, 마을정비소, 공동구매, 구인구직), 그리고 정보 및 서비스공유(지식, 경험, 재능, 빅데이터 공유 등), 6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김윤경(2014)은 공유자원의 유형을 제품, 장치, 장비, 공간 시설과 같은 문화적 작용에 의해 생성된 유형자원, 예술, 문화 콘텐츠, 정보, 아이디어, 전통, 언어, 종교, 제도, 조직, 정치 등과 같이 문화적 작용에 의해 생성된 무형자원, 사람의 노동력(정신, 육체노동)과 기술인 인적 자원, 화폐 자원 등과 같은 재무 자산, 광물, 토지, 수자원, 동물, 자연경관, 태양열 등 자연물, 자연력인 천연 자원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측면의 공유경제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공유자원으로 분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도서관에서 공유경제의 공유대상이 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악해 보았다. 종합적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공유자원의 분류를 경제적 가치를 지향하는 도서관의 물건, 공간 공유,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교육, 콘텐츠 공유, 커뮤니티

니티 가치를 지향하는 도서관의 네트워크, 경험·재능 공유, 기술적 가치를 지향하는 신기술, 편리성 공유, 환경적 가치를 지향하는 친환경성으로 제시하였다.

3. 공유경제형 도서관 서비스 도입 가능성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가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였다. 공유경제의 세부적 구조와 내용은 사업모델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공유경제는 자원의 희소성이 야기하는 경제문제를 완화하고, 친환경을 추구하며, 사회전체의 효율을 증대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과 비교할 때 매우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공유경제는 유희자원의 사용가치 제고를 통해 거래 비용 감소, 가격 인하, 품질수준 제고, 선택 다양성 확대,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의 긍정적 측면을 통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커뮤니티, 환경적, 기술적 측면에서 이점과 가치를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자원은 산업전반을 넘어 인간의 본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도서관이 공유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당위성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유경제는 유형 자원을 넘어 무형자원의 측면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정보나 아이디어 등이 ICT 기술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결합되면서 전통적인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었던 무형의 자원이 공유의 차원에서 시간, 경험, 생각, 능력 등의 분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 기업에서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숙박공유서비스 업체들의 지방 및 해외로 서비스 확장이 용이하며, 주요 고객군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자동차 공유서비스 등으로 사업의 확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면에는 무형자원의 공유가 확대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무형자원에 대한 신뢰성 및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무형의 자원의 경우 개인이 이를 판단할 수 없는데서 오는 문제점이다. 하지만 도서관의 경우 사람책 등 무형자원의 공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무형자원에 대한 공유를 위하여 도서관이라는 공공기관이 중간 다리역할을 함으로써 무형자원에 대한 신뢰성 및 전문성, 적합성을 보장해 줄 수 있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공유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보면, 도서관은 과거에서부터 이미 공유경제형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유경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점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체계화 및 재정립화를 통하여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는 물론 공유경제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공유경제와 도서관

1. 공유경제와 도서관의 관계 도출 과정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 가치 실현의 장으로서 도서관이 가지는 공유가치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공유경제 가치와 도서관의 가치간의 관계를 도출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체계화 및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공유경제와 도서관의 관계 도출과정은 다음의 <표 12>과 같다.

<표 12> 공유경제와 도서관의 관계 도출 과정

연구절차	처리내용	도출결과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통해 도서관의 추구 가치와 공유경제에 대한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함 도서관에서 실현하고 있는 또는 실현가능한 공유경제의 가치 검토 	공유경제와 도서관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
공유경제 가치를 지향하는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서관에서 추구 및 실현하고 있는 기능·가치·역할은 유무형 자원의 공유를 통해 얻어지는 이점(가치)과 공유경제의 가치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점을 도출 및 강조함 	공유경제의 가치와 도서관 기능과 역할의 연계성 제시
공유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제시를 위하여 도서관의 공유가치를 실현하는 도서관의 업무 검토 각 도서관이 공유가치에 대한 도서관 업무 제시 도서관을 공유가치 창출자로서 기능과 역할을 도식화함 	앞선 연구를 기반으로 공유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의 가치 및 역할 제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첫째, 공유경제의 특징과 편익·가치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검토과정을 통하여 공유경제가 가지는 잠재력과 가치를 분석하고, 둘째,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공유경제의 다양한 가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셋째, 이를 바탕으로 공유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의 가치 및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도서관의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의 가치를 경제·사회·커뮤니티·기술·환경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도서관은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도서관이 지향하는 가치는 공유경제의 가치와 유사한가?, 또는 도서관은 이전부터 공유경제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등의 관점에서 도서

관의 가치를 고찰하였다. 앞서 논의된 다섯 가지 측면에서 공유경제의 가치를 도서관의 역할과 연계하여 다루고자 한다.

「도서관법」 제1장 제1조(목적)에서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도서관에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으로 도서관은 ‘공유’를 실현하고 있다. 공유경제 또한, 자원의 희소성이 야기하는 경제문제를 완화하고, 친환경을 추구하며, 사회전체의 효용을 증대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대안 경제모형이다. 이처럼 공유경제와 도서관은 유사한 개념을 기반으로 존재한다. 앞서 공유경제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도출된 5가지의 공유경제의 특징과 가치는 도서관의 세부적인 기능과 역할이 일치함으로 살펴보았다.

도서관의 기능·역할은 공유경제와 도서관 서비스 관련 연구(노영희, 2016)을 기반으로 4차 산업시대와 미래 도서관에 대한 연구(박옥남 외, 2017; 김용 외, 2017, 조명대, 2017) 등에서 공유경제 가치를 지향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수집하여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도서관의 가치 측정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산출하는 결과와 그 가치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와 범위, 유형(Aabo and Strand 2004; Elliott et al. 2007; Horton and Spence, 2006),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문화, 교육, 사회적 혜택과 가치(Fitch and Warner 1998; Kerslake and Kinneli 1998; Poll, 2003) 등이 심층적으로 논의되었다.

공유경제의 세부적 잠재력과 가치에 따른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경제가 지향하는 경제적 가치와 관련하여 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사 역할, 기능,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Holt, Elliott and Moore 1998; Abend and McClure 1999; Horton and Spence 2006). 먼저, 개인의 소비, 기업의 정보 획득에서 오는 금전 및 시간적 절약과 이득이라는 개별적 혜택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개인이 받는 경제적 혜택으로는 도서, 신문, 잡지와 같은 자료의 구매를 대신하여 무료로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절약되는 금전적 혜택이 가장 대표적인데 플로리다주의 공공도서관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취업, 새로운 사업의 착수 등 개인의 사업 발전이나 재정적 이득의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다(McClure et al. 2000).

다른 측면에서는 고용, 소비, 수입, 재소비의 증대 및 새로운 고객의 유입, 재정적 지원이 증대되는 것과 같이 지역 경제지표에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의 결과로 보는 거시적인 관점이다. 이러한 개인적 경제적 혜택은 직접적이며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위와 같은 혜택을 얻기 위한 지출의 절약으로 개인의 자산 증가나 많은 정보를 접함으로써 해박한 지식과 같은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표순희, 정동열 2008).

표순희, 고영만, 심현식(2011)은 1990년 후반부터 시작된 공공도서관의 가치 측정 연구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혜택 즉, 영향력이나 가치를 이용자의 시각에서 측정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공도서관 분야에서 수행된 일련의 가치측정 연구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공공도서관의 영향력 및 가치를 화폐로 측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의 무형적인 가치를 유형의 데이터로 가시화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공공도서관의 가치와 이를 통해 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이 뚜렷이 나타난다. 경기 침체 시, 공공도서관 이용자가 인터넷 접근, 직업 및 사회 서비스 지원 등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과 요구가 높아진다(Griffiths and King 2011; Carlton 2009; Yates 2009; Gwinn 2009; Jackson 2009; Sigler et al., in press; Van Sant 2009). 또한,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과 표현할 수 있는 분야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와 교육, 기술 문맹 퇴치, 구직 활동, 사회 복지 서비스 신청 등이 있다(Jaeger et al. 2011).

이처럼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위하여 지역경제 가치 향상, 경제 활성화, 인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공유로 인한 사회적 투자 환원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서관의 기능과 공유경제의 경제적 가치와 연계하여 <표 13>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13> 공유경제의 경제적 가치와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공유경제의 가치	가치에 의한 편익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경제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이익 증대: 가계경제 도움 자산의 활용도 상승/자원의 효율성: 물건이용도·시설 활용도 제공 소유할 필요 감소(편리함) 상품소비 절감, 저렴한 사용 비용 새로운 일자리/비즈니스 기회(신규시장) 창출 	물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소유 물건의 무료 이용을 통한 금전적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돈과 시간 절약 세계 도처의 쉽고 저렴한 여행 수요시장 수익증대: 저렴한 거래비용 수요자 수익성 개선 공급시장 수익증대: 유휴자원을 통한 거래 수익 창출 가계 부가수입 발생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의 모든 장소 제공·공유

둘째, 도서관의 기능과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와 연계하여 <표 14>와 같이 제시하였다. 경제적 영향은 개인, 지역의 개별기업, 지역 전반에 걸친 것으로 Fraser등과 유사하게 보았고 사회, 문화, 교육적 혜택도 개인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으로 나누어 보았다. 개인적 혜택으로 여가 시간 이용, 정보화된 개인적 결정 수행, 교양, 교육 지원, 평생 교육, 지역 역사, 족보로 나타났으며, 지역 사회 측면의 혜택으로 사회적 교류, 지역 사회 인지도 상승, 교양, 민주사회 형성으로 나타났다(Matthews 2004). 공공도서관이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적 임무에 대한 발전적 역할을 주창하며, 공공도서관의 기능에 문해, 교육, 평생학습, 고용, 가족, 빈곤, 건강, 민주주의, 지역문화 등의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Matarasso 1998). 또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로 지역 사회 개발, 지역 사회의 연계, 지

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주민의 평등화, 지역 사회에 필요한 정보제공서비스로 구분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이용과 장서구축 등의 전통적 기능 외에도 다양한 문화행사와 콘텐츠, 그리고 평생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으로 기능한다(노영희 2017). 이러한 역할을 통해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을 가진다(노영희 2017; 차미경 2003). 공공도서관은 지역경제 또는 기업과 인력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교류와 의견교환 등은 주민들 간의 통합과 민주화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일반 주민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정보능력 향상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의 평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각종 문화행사 또는 전시 관람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도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Rasmussen and Jochumsen 2003; 노영희 2017; 차미경 2003). 이처럼 공유경제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가치는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진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사회적 측면의 공유가치 실현하기 위해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그 기능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식정보서비스이다. 도서관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소장과 접근이 공존하는 정보원을 구축하고 도서관이 전통적 정보서비스와 최신의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정보취약계층의 지식정보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함을 도서관법에 명시하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영삼, 조용완 2007). 다음으로 도서관은 교육적 역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도서관의 미시적-인지적 측면인 개인 계발 영역을 소개하고 있다. 즉 지역 도서관의 자원에 대한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영역으로 지역민이 사회의 커다란 변화에 적응하고 창의력을 개발함으로써 개인과 지역사회의 경제·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성우, 장우권 2009). 마지막으로 도서관은 콘텐츠, 즉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의 문화·예술 관련 문화적 향유와 활동을 독려함으로써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민의 문화적 향유와 활동을 독려하여 문화와 예술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고 또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의 폭을 확장시켜 시민적 참여를 활성화하여 민주주의 기반을 형성한다고 도서관의 거시적-인지적 측면의 사회자본을 설명하고 있다(박성우, 장우권, 2009).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0조 5항에는 “공공도서관은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주최하고 장려한다.”라고 공공도서관에서의 문화 및 교육적 기능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유경제의 사회적 측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적 기능 강화,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준 증진, 지역적인 문화격차 해소, 지역의 잠재적 이용자나 비이용자들에 대한 도서관 유인·유입 기회 제공 등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문화교육적인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김홍렬 2004). 공공도서관은 교육·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주민이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문화생활과 관련한 매우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도서관의 사회적 측면의 공유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은 사회의 기여를 크게 문화적(콘텐츠), 교육적, 정보제공 측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와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공유경제의 가치	가치에 의한 편익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사회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교통문제, 주차문제, 재난대응, 교육 등 •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약과 노동의 유연성 제고), 새로운 직업/사업모델 등장, 창업고취, 사회혁신 자극 등 • 취약계층 도움: 고가의 상품이나 독점적인 재능과 서비스의 공유 기회 제공, 노인복지, 소유에서 공유로의 전이에 의한 새로운 평등한 사회·경제·문화구조 • 오프라인 이슈해결과 혁신 가속화 	지식 정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 시민 양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학습지원 • 평생교육기능 • 연구 및 학술활동 기여 • 교육자료 제공 • 교육환경조성 • 독서역량강화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예술 관련 문화적 향유와 활동 독려 • 지역 역사, 족보 • 지역문화 계승 및 홍보

셋째, 공유경제의 커뮤니티 측면의 가치에 대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연결하여 <표 15>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의 선행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앞서 가치 설명에 있어 공유경제로 이윤을 추구할 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신뢰와 연대의 누적을 통해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이를 통해 산업화 이후로 계속 문제시되어 왔던 해체되는 공동체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동시에 개인에게 융합을 통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여행지에서 일반적으로 숙박하던 호텔 이외에 현지인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즐기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혹은 가치를 얻게 한다(차두원, 진영현 2015)고 언급하였다. 다음의 커뮤니티 가치의 정의를 바탕으로 개인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고, 개개인이 만나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신뢰, 관계를 공유하며, 각각의 개인은 참여자인 동시에 제공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도서관은 이러한 공유경제의 커뮤니티 측면의 가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공동체의 모임장소이며, 공동체의 정보 및 오락의 중심지로 묘사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공고화된 연결망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소셜네트워크, 인터넷을 활용하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확대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람들의 소통과 협력, 커뮤니티 구축하는 기능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Farkas, 2007). 이외에도 도서관에서 공유경제의 커뮤니티 측면의 가치를 지향하는 연구로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정체성, 공동체 결속력, 민주적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교양, 평생교육, 어린이의 학습, 정보 기술, 학술과 전문적인 성공에 기여함으로써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다수의 문헌에서 언급

되고 있다(Debono 2002; Kerlake and Kinneli 1998; Fitch and Warner 1998; Poll 2003; Berryman 2005). 특히, Berryman(2005)은 공공도서관의 역할로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에 대한 의미의 강화, 학습 취약자나 실업자와 같은 공동체의 주변 구성원 간의 교류 증진, 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안전한 환경의 제공, 공동체 통합 구축 등을 언급하고 있다. 노영희(2017)는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영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로 간주되는 커뮤니티 측면을 강조하여 독립적인 가치로 구성한 공유경제의 커뮤니티 가치는 다음의 연구에서 측정된 평가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평가 영역은 지역 사회 개발(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 제공, 사람과 아이디어 연결의 중개자), 지역 사회의 연계(지역커뮤니티의 생성과 강화, 지역주민의 연계성 강화 기여, 대인관계 향상에 기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레크리에이션 강화, 건강증진 기여, 삶의 질 향상 기여), 지역 주민의 평등화(취약계층에 대한 기여, 지역주민의 평등), 지역 사회에 필요한 정보제공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은 커뮤니티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2014~2018)에서 다음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용자 간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앱 ‘무한상상장터(가칭)’ 개발·보급,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지역민의 커뮤니티 기능 강화,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15〉 공유경제의 커뮤니티 가치와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공유경제의 가치	가치에 의한 편익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커뮤니티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신뢰 향상, 공유(상품과 서비스 교류)를 통한 신뢰관계 구축 및 향상 • 커뮤니티(공동체) 활성화 • 공유의식 향상, 공동체 의식 • 사회적 가치 회복 • 사회적 관계 강화 • 개인에게 새로운 경험 제공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의 장소 •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강화
		경험 · 재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경험 제공 • 각 개인의 재능을 공유

넷째, 산업혁명의 다양한 최신 기술은 모두 사람이 중심이며 인간의 생활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지능형 데이터, 개인화, 스마트 디바이스와 같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상시 정보 전달을 위한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며 더불어 사서들의 신기술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도서관에 신기술 기반 서비스 도입 시 정책 및 제도 조직 및 인력 공간 및 시설 등 행정적인 시스템에 대한 재설계 및 지원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신기술로는 이용자 정보의 체계적 관리 활용을 위해 책봇, 스마트 그리드 로봇 시스템, 물품관리시스템 등의 도입이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김용 외, 2017). 또한,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서의 업무도 디지털 정보관리, 디지털 교수학습 자료 개발, 디지털 정보시스템 운영, 네트워크에 의한 도서관 상호협력 등으로 변화·추가되고 있다(안인자, 2005).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등장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도서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디지털 콘텐츠 등을 활용한 가상현실서비스, 지능형스택내비게이션서비스, RFID 셀프순환시스템 등을 제공하며 미래도서관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한 기술적 성장을 통한 효과적인 도서관서비스 제공과 함께 국립중앙도서관(2017b)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 수립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내의 정보차원의 대응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해외주요국에서는 이미 도서관에서의 대응이 빠르게 시작되었다.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등 해외주요국 도서관에서의 대응현황은 다음과 같다(박태연 외, 2018). 미국의회도서관의 경우 국민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전략중 하나로 기술(Technology)을 선정하였으며, 도서관에서 최신의 기술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함을 강조하였으며, 중국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China, NLC)에서는 ‘선진기술로 강화되는 도서관’이라는 전략을 기반으로 사서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탐구를 수행하고 현대 정보기술의 적용을 가속화하고자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2017a). 영국국립도서관은 「Living Knowledge: The British Library 2015-2023」에서 정보기술 혁신에 대응하여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도서관의 비전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4차 산업시대에서 도서관에서는 기술적 향상을 요하고 있으며, 사람 중심의 신기술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도서관 활용에 있어 혁신적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옥남(2018)은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영역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기술융합을 통해 나타나는 지능화된 사회변화를 의미하며 초연결성, 초지능화, 맞춤형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이른바 ‘스마트비즈니스모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및 클라우드를 통해 초연결성에 기반을 둔 플랫폼기술은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및 주문형경제(On Demand Economy) 등 데이터중심 또는 소비자공급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등장시키고 있다.

Goman의 ‘신 도서관학 5법칙(1995)’에서도 ‘도서관 봉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지적으로 이용하라’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남태우(2016)는 ‘모든 이용자에게 그들의 웹 자원을, 모든 웹 자원은 그들의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하라, 웹은 성장하고 있는 유기체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공유경제의 기술적 가치는 도서관의 신기술 도입을 통한 서비스 첨단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4차 산업시대의 기술융합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변화에 발맞춘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의 편리성, 시간 절약 등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2014~2018)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도서관서비스 기술 연구·개발 필요, 디지털자료 발굴·확충 소셜미디어, 소셜네트워크, SNS·개인화서비스, 전자식별(RFID) 기술을 적용한 U-도서관 구축, 도서관 IT 자원의 효율성 제고, 스마트 서비스에 적합한 미래 도서관서비스 인프라 조성을 위해 클라우드 기술 도입 등의 내용을 제시하여 도서

관의 신기술 적용 및 이에 따른 이용자의 편리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서관의 기능·역할과 공유경제의 기술적 가치와 연계하여 <표 1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6> 공유경제의 기술적 가치와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공유경제의 가치	가치에 의한 편익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기술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웹3.0, 모바일 소셜네트워크 등 신기술의 환경을 기반으로 둔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을 통한 접근성 향상, 온라인 이용향상, 스마트 디바이스 	신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 시대에 대응 정책 마련
		편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 관련 기술 도입

다섯째, 공유경제의 환경적 가치와 도서관의 역할이다. 환경과 도서관의 관련성은 보는 시각에 따라 관련성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도서관은 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천연자원이나 재생자원의 사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물과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것, 건물 및 도서관부지 디자인에 실제 녹음과 식물을 통합하는 것, 가급적 가뭄 저항이 있는 원식물을 사용한 것,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실내 공기 품질에 대해 높은 표준을 유지하는 것이 등이 있다(노영희 2015). 이처럼 도서관의 변화를 통해 도서관의 친환경을 추구할 수 있고, 보다 발전된 형태의 도서관 녹색화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도 있다. 도서관의 친환경성과 관련하여 녹색도서관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 개발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도서관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서비스·자료·교육적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Miller 2010), 도서관 자원 절약, 공간 활용, 도서관 용품 및 장서, 기증, 실내환경, 생태환경, 유지관리, 물순환관리, 재료 및 자원,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방지,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 친환경적 직원 및 운영, 전산화로 범주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노영희 2015). 실제 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LAPL Lake View ATerrace Branch Library는 입구와 커뮤니티 방을 덮는 광발전시스템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으며, LAPL Harbor City - Harbor Gateway Branch Library의 건물은 기존의 나무 바닥 빠른 재생이 가능한 대나무를 사용하여 건설되었다. 이외에도 특수수도관 시설을 통해 실내에서 20%이상의 물을 절약하고 있으며,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발생 정도가 낮은 페인트, 스테인, 접착제, 카펫 등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노영희, 안인자 2012).

<표 17> 공유경제의 환경적 가치와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공유경제의 가치	가치에 의한 편익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환경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도시화, 자원고갈, 환경문제로 인한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자원낭비 최소화, 자원절약 환경오염 방지(최소화), 환경보호 지속가능성, 친환경성 실천 	친환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도서관, 친환경도서관 도서관 건물의 친환경 적용 도서관 에너지사용과 녹색화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의 경제적·사회적·커뮤니티·기술적·환경적 가치를 정리하였으며,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공유경제 환경에서 공유가치를 실현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업무를 제시하면 <표 18>과 같다.

<표 18> 공유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공유경제의 가치		공유자 원	공유경제 관련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기능 및 역할	세부 예시
경제적 가치	• 자산 활용도 상승	물건	• 도서관 소유 물건의 무료 이용을 통한 금전적 혜택	• 도서, 멀티미디어, 영화 및 영상자료, 학술웹정보, 아카이브자료 등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원 • 컴퓨터·프린터·스캐너·복사기 등 장비·기계 • 아나바다의 공유물건 • 악기, 스포츠도구, 가정용품 등 각종공구
	• 시설 활용도 제고	공간	• 도서관의 모든 장소 제공·공유	• 열람실·그룹스터디실·세미나실·서가·멀티미디어실·시청각실·소강당·대강당·전시실 등 • 창업공간, 실험실 공간, 스토리텔링 공간, 작업공간, 최첨단세미나실, 무한상상실, 다양한 목적별 가상공간 • 도서관 주차공간, 휴게실, 복카페 등 • 디지털 도서관 Information Commons 및 서비스 강화(디지털 도서관 모바일 앱 서비스 강화) • 정보광장, 디지털 체험존, 전국 도서관의 정보화 공간 마련
사회적 가치	• 지역경제 활성화 •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식 정보 서비스	• 정보화 시민 양성	• 도서관의 모든 정보 자원에 있는 지식 • 참고서비스·대출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원문제공서비스 • 각종콘텐츠·주제별특성화자료·각종주제의 지식 • 전문지식정보서비스(전문적인 학술연구자료) • 실무자 교육 훈련: 지능 정보화 기능에 기술적인 서비스, CS 교육 강화 • 개인서비스: 큐레이션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독서치유 서비스 • 세대별 평생학생 프로그램 구축, 이용자 유형별 단계별 도서 추천(코디네이터)
	• 취약계층 도움	교육	• 개인학습지원 • 평생교육기능 • 연구 및 학술활동 기여 • 교육자료 제공 • 교육환경조성 • 독서역량강화	• 취약계층을 포함한 교육 환경 조성 (노년층 대상 교육) • 전문인력 • 정보활용교육, 신기술 활용 능력 교육을 통해 재능과 서비스의 공유 기회 제공 • 어학정보프로그램: 외국어 한문 컴퓨터 정보 등 • 독서교육·도서관이용교육·도서관행사 프로그램
	• 정보공유 활성화	콘텐츠	• 문화, 예술 관련 문화적 향유와 활동 독려 • 지역 역사, 족보 • 지역문화 계승 및 홍보	•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이용자 참여지원 • 지역주민 공유 프로그램·장기적 프로젝트 • 공동워크숍, 행사, 교육전시문화프로그램 개최 및 확대 • 자산의 교환 구조: 개인이 공유 경제 활동의 누적치를 공유, 평판의 자산화·사회적 자산 은행 소셜 브랜드에 대한 공유를 국가의 인프라화
커뮤니티 가치	• 새로운 인간관계의 확대 • 공동체 의식 회복	네트워크	• 모임의 장소 •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강화	•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주는 사회연결망이자 정보교환의 장 마련 • 소셜 미디어 활용 아웃리치 서비스·목적별 SNS 서비스 공유·SNS 서비스 활성화로 이용자들 간의 소통과 경험 공유의 장 마련(이용자의 공유의식 향상) • 참여기관 등의 네트워크 확대
	• 사회적 의식 향상 • 공유를 통한 신뢰관계 구축 및 향상 • 공동체 의식 회복	경험·재능	• 새로운 경험 제공 • 각 개인의 재능을 공유	• 전문가멘토링·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재능기부·교육노하우 • 창업아이디어·각종주제별오픈강의공유·각종채용정보 • 도서관 사회 교육 기능 및 서비스 제공(중점 주제문헌도입, 미성년자 등 특수 그룹에 대한 서비스)

기술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을 고려한 기술적 측면 	신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 시대에 대응 정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 혁명시대의 6대 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휴먼로봇 • 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기술이나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와 접목되어 기능적 향상, 수요견인 역할 • 온라인 이용 향상 • 기술 향상에 따른 편리함 증가 • 시간 절약 효과 (이용의 편리성) 	편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 관련 기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웹3.0, 모바일 소셜네트워크 등 기술발전 환경에 부합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성 증대 추구, 정보비대칭성 해소, 거래비용 감소 • 전자책리더기·BookMachine 등 자가출판시스템 • 인터넷을 통한 접근성 향상 • 온라인 이용향상 •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전자적 접근을 확보 • 온오프라인 자료와 프로그램의 One-Stop 통합서비스 • 스마트 디바이스
환경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생산성을 높임, 자원낭비 최소화(자원절약) • 환경오염 최소화(환경보호) • 지속가능성 • 친환경성 실천 	친환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도서관, 친환경도서관 • 도서관 건물의 친환경 적용 • 도서관 에너지사용과 녹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서비스·자료·교육적 요소도서관 자원 절약, 공간 활용, 도서관 용품 및 장서, 기증, 실내환경, 생태환경, 유지관리, 물순환관리, 재료 및 자원,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 오염방지,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 친환경적 직원 및 운영, 전산화 측면에서 친환경 추구 및 도서관 녹색화 추진

V. 결론 및 제언

세계의 트렌드 중 하나인 공유경제와 도서관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공유경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단순히 소비자들의 소비형태 변화 또는 경제적 이익 추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자원의 본래 가치를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자원절약, 비용 절감, 지속가능한 발전, 공동체의 복원과 활성화 등 경제적·사회적·커뮤니티·기술적·환경적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서관은 공유의 시작이다. 도서관은 설립부터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기관으로, 공유경제와 그 가치를 도서관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두 개념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공유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의 공유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공유경제의 특징과 편익·가치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서관의 추구 가치와 공유경제에 대한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도서관에서 지향할 수 있는 공유경제의 가치를 경제적·사회적·커뮤니티·기술적·환경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도서관에서 실현하고 있는 또는 실현가능한 공유경제의 가치 검토하여 각각의 공유경제의 가치와 도서관의 기능을 매칭하치 하여 제시하였다. 즉, 도서관에서 추구 및 실현하고 있는 기능·가치·역할은 유무형 자원의 공유를 통해 얻어지는 이점 및 잠재적 가치와 공유경제의 가치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유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의 역할 제시를 위하여 도서관의 공유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도서관의 업무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서관을 공유가치 창출자로서

역할을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유경제로부터 창출되는 가치를 경제·사회·커뮤니티·기술·환경적 등 5가지로 구분하여 도서관이 추구하고 있는 유사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공유경제와 도서관의 유사한 지향점을 기반으로 공유경제시대에 도서관의 공유가치를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도서관의 가치를 공유경제를 투영하여 재인식하며, 공유경제시대의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공유경제 환경에 발맞추어 공유경제와 유사한 도서관의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 하였다. 이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실행,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공유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나아가 사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유경제와 도서관은 공유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어, 공유경제의 경제적·사회적·커뮤니티·기술적·환경적 가치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매칭하여 도표화할 수 있었다. 공유경제의 빠른 확산과 함께, 도서관 측면에서 공유경제시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도서관의 가치와 역할을 다시금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와 도서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측면에서 관련 연구를 통해 공유경제와 도서관 사이의 가치와 역할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적 측면에서의 직접적 가치와 역할을 증명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공유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정도, 선호도, 요구도, 이용경험 및 만족도, 기대태도, 사용의향 등을 파악하여 이를 통한 공유경제와 도서관의 가치를 실증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병준, 최무현. 2013. 공유경제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책개발 연구』, 13(1): 143-170.
- 강철구, 전소영. 2017. 경기도 친환경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 1-137.
- 고영삼, 조용완. 2007.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역 공공도서관의 역할 탐색.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4): 29-48.
- 고윤승. 2014. ICT 발달에 따른 공유경제에 대한 소고. 『e-비즈니스연구』, 15(6): 77-100.
- 권애라. 2013. IT 비즈니스 발전에 따른 공유경제 성장전망 및 시사점. 『KDB 산업은행 산업이슈』, 73-87.
- 김갑환, 김학봉, 우창훈. 2017. 공유경제와 물류자원 공유 사례조사. 『한국 SCM 학회지』, 17(2): 89-115.
- 김경호. 2016. 4차 산업시대를 열어가는 공유경제 서비스. 『STSS 지속가능과학기술학 학술대회』,

137-139.

- 김기연. 2014.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인식 스키마 유형 연구. 『주관성 연구』, 29: 99-119.
- 김기연, 김흥규. 2013. 협력적 소비,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에 관한 소비자 선호 유형 연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주관성 연구』, 27: 23-40.
- 김목한. 2014.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세계와 도시 1&2 통합호』, 32-44.
- 김용, 김건, 오효정, 양동민, 한희정, 박태연, 김태영, 강주연. 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의 미래전략 및 서비스 모형 구축 연구』. 국립중앙도서관[편],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윤경. 2014. 『문화콘텐츠산업을 위한 IT 플랫폼 기반의 공유모델 연구 - 공유경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지털콘텐츠디자인 전공.
- 김홍렬. 2004.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문화 및 교육적 기능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4): 339-360.
- 김은란, 차미숙, 김상조, 박미선. 2015.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1-187.
- 김점산, 지우석, 강상준. 2014.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미래와 성공 조건. 『이슈&진단』, 134: 1-25.
- 김형균. 2013. 부상하는 공유경제, 시정소프트 활용 방안. 『BDI 정책포커스』, (198): 1-12.
- 김형균, 오재환. 2013. 도시재생 소프트 전략으로서 공유경제 적용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남태우. 2016. 『도서관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노영희. 2016. 공유경제의 도서관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3): 75-98.
- 노영희. 2017.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2): 181-214.
- 노영희, 안인자. 2012. 『친환경 녹색도서관』. 서울: 조은글터.
- 리준영. 2014. 공유경제와 사회적 기업. 『서비스경영학회지』, 15(4): 107-124.
- 박성우, 장우권. 2009. 사회자본과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215-231.
- 박옥남, 이정미, 배경재, 차성중. 2017. 국립중앙도서관 서비스의 미래 방향성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4): 269-299.
- 박옥남.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변화와 사서교육 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285-311.
- 박태연, 강주연, 김용, 김태경, 오효정.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서관의 미래상에 대한 사서 인식조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203-229.
- 반정화. 2016. 관광경험 제고와 공유경제. 『한국관광정책』, 63: 22-31.
- 반정화, 박윤정. 2015. 서울시 공유경제 활성화방안.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1-106.
- 성준호. 2013. 『공유경제 서비스 기업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월간 신한 리뷰(2013년 3월호):

- 14-17.
- 신은별. 2016. 『공유경제에 기반한 ‘셰어링스페이스’의 공간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 공유공간의 운용, 기능, 공간특성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환경디자인학과.
- 심수진. 2016.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6(4): 163-183.
- 안인자. 2005. 사서직 업무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1): 233-246.
- 양희동. 2014.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향후 전망』. 광고정보센터매거진.
- 엘릭스 스테파니(저). 위대선(역), 차두원(감수). 2015. 『공유경제는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서울: 한스미디어
- 이광훈. 2014. 공유주차를 통한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활성화 방안. 『정책리포트』, 174: 1-18.
- 이성엽. 2016.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행정법연구』, 44: 19-41.
- 이중원. 2016. 『공유경제 플랫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T의 역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디지털경영학과.
- 전수연. 2014. 『온라인 공유경제 플랫폼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디지털경영학과.
- 조경복. 2015. 『공유경제 실현과 지역경제 연계를 위한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구축-지역 카셰어링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부경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 조명대. 2017. 제4차 산업혁명의 정신과 도서관의 역할.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05-130.
- 주강진, 김애선, 신영섭, 장아침. 2016. 공유경제와 미래사회. 『포럼보고서』, 1-127.
- 주덕. 2016. 관광부문 공유경제의 실험. 『관광레저연구』, 28(4): 43-58.
- 차두원, 진영현. 2015. 『초연결시대, 공유경제와 사물인터넷의 미래』. 서울: 한스미디어.
- 차미경. 2003.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 평가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4): 311-328.
- 최세정. 2018. 『중국 차량 공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 및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디디추싱(滴滴峰痧) 중심으로 -』.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과.
- 최청정. 2017. 『문화예술 부문 공유경제 비즈니스 사례분석 및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 최현수, 박준태. 2014. 서울시의 카셰어링 이용도에 대한 지역적 요인특성분석.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17(5): 381-389.
- 클라우드 산업연구소. 2013.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기업들을 통해 살펴본 공유경제
- 표순희, 정동열. 2008. 공공도서관 경제적 이용가치 측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42(2): 209-234.
- 표순희, 고영만, 심원식. 2011. 공공도서관 이용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323-341.
- 표순희. 2006. 공공도서관 경제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243-261.
- 노영희. 2015. 녹색도서관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2(3): 99-130.
- Abend, Jennifer, and Charles R. McClure. 1999. "Recent views on identifying impacts from public libraries." *Public Library Quarterly*, 17(3): 3-29.
- Aabø, Svanhild and Jon Strand. 2004. "Public library valuation, nonuse values, and altruistic motivation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6(3): 351-372.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5. "Sharing Economy." <<http://www.ala.org/transforminglibraries/future/trends/sharingeconomy>> [cited 2018 7. 17].
- Botsman, Rachel and Roo Rogers. 2010a. *What's Mine Is Yours: The Ris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New York: Harper Business.
- Botsman, Rachel and Roo Rogers. 2010b. "Beyond Zipcar: collaborative consumption." *Harvard Business Review*, 88(10): 30.
- Cannon, Sarah and Lawrence H. Summers. 2014. "How Uber and the sharing economy can win over regulators." *Harvard business review*, 13(10): 24-28.
- Cusumano, Michael A. 2015. "How traditional firms must compete in the sharing economy." *Communications of the ACM*, 58(1): 32-34.
- Elliott, Donald S., Geln E. Holt, and Sterling W. Hayden. 2007. *Measuring your library's value: How to do a cost-benefit analysis for your public library*.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Farkas, Meredith G. 2007. *Social software in libraries: building collaboration, communication, and community online*. Information Today, Inc.
- Fitch, Leslie and Jody Warner. 1998. "Dividends: the value of public libraries in Canada." *The Bottom Line*, 11(4): 158-179.
- Garlick, Ross. 2014. "Ramble of the day: The Library is a Sharing Economy Pioneer." <<http://rossgarlick.com/2014/01/16/ramble-of-the-day-the-limits-of-the-sharing-economy>> [cited 2018. 7. 18].
- Gold, Lorna. 2010. *New Financial Horizons: The Emergence of an Economy of Communion*. New York: New City Press.
- Hamari, Juho, Mimmi Sjö klint, and Antti Ukkonen. 2016. "The sharing economy: Why people participate in collaborative consump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7(9): 2047-2059.

- Hillenbrand, Candy. 2005. "Public libraries as developers of social capital." *Australasian public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18(1): 4.
- Jaeger, Paul T., John Carlo Bertot, Christine M. Kodama, Sarah M. Katz, and Elizabeth J. DeCoster. 2011. "Describing and measuring the value of public libraries: The growth of the Internet and the evolution of library value." *First Monday*, 16(11).
- Yates, Kristina. 2009. "Hard economic times: A boon for public libraries." <<http://www.cnn.com/2009/US/02/28/recession.libraries/index.html>> [cited 2018. 07. 19].
- Bertot, John Carlo, Paul T. Jaeger, Lesley A. Langa, and Kathryn Sigler. "Public libraries, the Internet, and economic uncertainty." *Advances in Librarianship*, 34.
- Kerslake, Evelyn, & Margaret Kinnell. 1998. "Public libraries, public interest and the information society: Theoretical issues in the social impact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30(3): 159-167.
- Kim, W. Chan and René e A. Mauborgne. 1998. "Value innovation: the strategic logic of high growth." *IEEE Engineering Management Review*, 26(2): 8-16.
- Lessig, Lawrence. 2008.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 Gwinn, M. A. 2009. "Library use jumps in Seattle area; Economy likely reason." *Seattle Times*, 23.
- Malhotra, Arvind., and Marshall Van Alstyne. 2014. "The dark side of the sharing economy... and how to lighten it." *Communications of the ACM*, 57(11): 24-27.
- Matarasso, François. 1998. *Learning development: an introduction to the social impact of libraries*. Bournes Green, Stroud: Comedia.
- Matofska, Benita. 2014. "What is the sharing economy." *The people who share*, 444.
- Matthews, Joseph. R. 2004. *Measuring for results: The dimensions of public library effectiveness*. Libraries Unltd Incorporated.
- McClure, Charles, Bruce T. Fraser, Timothy W. Nelson, and Jane B. Robbins. 2000. "Economic benefits and impacts from public libraries in the State of Florida." *Final Report*.
- Mies, Ginny. "Libraries Need to Lead the Sharing Economy." <<http://www.techsoupforlibraries.org/blog/libraries-need-to-lead-the-sharing-economy>> [cited 2018. 07. 18].
- Earth, One. 2015. "Local Governments and The Sharing Economy." 27
- Owyang, J., Alexandra Samuel, and Grenville, A. 2014. "Sharing is the new buying: How to win in the collaborative economy." Vision Critical/Crowd Companies.
- Poll, Roswitha. 2003. "Measuring impact and outcome of libraries." *Performance measurement*

- and metrics*, 4(1): 5–12.
- Rasmussen, Casper Hvenegaard and Henrik Jochumsen. 2003. “Strategies for public libraries in the 21st centur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9(1): 83–93.
- Rauch, Daniel E. and David Schleicher. 2015. “Like Uber, But for Local Governmental Policy: The Future of Local Regulation of the Sharing Economy”, *George Mason Law & Economics Research Paper (15-01)*.
- Rifkin, Jeremy. 2011.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 Rifkin, Jeremy. 2014. *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 The Internet of Things, The Collaborative Commons, and the Eclipse of Capitalism*. Palgrave Macmillan.
- Rothenberg, Sandra. 2007. “Sustainability through servicizing.” *Sloan Management Review*, 48(2): 83–91.
- Schor, Juliet B. and Connor J. Fitzmaurice. 2015. “Collaborating and connecting: the emergence of the sharing economy.” *Handbook of Research on Sustainable Consumption*, 26: 410.
- Sandararajan, Arun. 2014. “The Power of Connection: Peer to Peer Businesses.” *The Committee on Small Business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 Time. 2011. 10 Ideas That Will Change the World. <http://content.time.com/time/specials/packages/article/0,28804,2059521_2059717_2059710,00.html> [cited 2018. 7. 17].
- Woskow, Debbie. 2014. *Unlocking the sharing economy: An independent review*. London: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 Miller, Kathryn. 2010. *Public libraries going green*. Chicago: Amer.LibraryAssn.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In-Ja. 2005. “A Study of Evolution of the Librarian Job.”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6(1): 233–246.
- Ban, Jung-Hwa and Park, Yoon-Jung. 2015. “Seoul City Activation Plan for the Sharing Economy – Focusing on Shared Accommodation.” *Policy Research Report of Seoul Research Institute*, 1–106.
- Ban, Jung-Hwa. 2016. “Improve tourism experience and Sharing Economy.” *KOREA*

TOURISM POLICY, (63): 22–31.

- Cha, Doo–Won and Young–Hyun Jin. 2015. *The Era of Super–Connection, The Future of the Sharing Economy and the Internet of Things*. Seoul: Hansmedia.
- Cha, Mikyeong. 2003. “A Study on the Outcome Indicators for Measuring Public Libraries’ Impact on the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4): 311–328.
- Cho, Kyoung–Bok. 2015. *Study on the Constructing Collaborative Local Governance for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ing Economy*. Ph. D. dis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 Cho, Myung–Dae. 2017. “The Spiri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Role of the Library.”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05–130.
- Choi, Chung–Jung. 2017. *A case study on sharing economy business and activation in the arts and culture*. M.A. thesis, Hongik University, Korea.
- Choi, Hyunsu and Juntae Park. 2014. “Study on the Local Factors Affecting Availability of Car–Sharing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17(5): 381–389.
- Choi, Se–Jung. 2018. *Factors Affecting Consumer Satisfaction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of Chinese Vehicle Sharing Services*. M.A. thesis, Korea University, Korea.
- Crowd Institute. 2013. “A Study on the Sharing Economy of Korean companies.”
- Jeon, Soo–Yeon. 2014. *A Study on Factors that Influence the Use Intention of Online Sharing Economy Platforms*. M.A. thesis, Korea University, Korea.
- Ju, Deok. 2016. “As the experiment of sharing economy in tourism – The accommodation selection attributes according to the purchase intention of sharing accommodation –.”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8(4): 43–58.
- Ju, Gang–Jing, Ae–Sun Kim, Young–Seob Shin and A–Chim Jang. 2016. “Sharing Economy and future society.” *Forum Report*, 1–127.
- Kang, Byoung–Jun and Mu–Hyeon Choi. (2013).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rospect and challenges of the sharing economy.”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13(1): 143–170.
- Kang, Cheol–Gu and So–Young Jeon. 2017.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Promoting Green Sharing Economy in Gyeonggi–Do. *Policy research*, 1–137.
- Kim, Eun–Ran, Mi–Sook Cha, Sang–Jo Kim, Mi–Sun Park. 2015. “A Study on Enhancing Urban Space Utilization based on the Sharing Economy.” *Research*

- Repor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Land Research*, 1–187.
- Kim, Hong Ryul. 2004. “A Study on the Cultural and Educational Function of Public Libraries for Regional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4): 339–360.
- Kim, Hyeong–Gyun and Jae–Hwan Oh. 2013.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haring Economy as Urban Regeneration Soft Strategy.” *Busan Development Institute*.
- Kim, Hyeong–Gyun. 2013. “Emerging Sharing Economy.” *BDI Policy Focus*, (198): 1–12.
- Kim, Jum–Sam, Woo–Seok Ji and Sang–Joon Kang. 2014. “The Future and Success Conditions of the Sharing Economy.” *Issue&Analysis*, (134): 1–25.
- Kim, Kap Hwan, Xuefeng Jin, Chang Hoon Woo. 2017. “A Survey on Sharing Economy and Logistics Resources Shar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pply Chain Management*, 17(2), 89–115.
- Kim, Ki–Yeon and Hung–Kyu Kim. 2013. “A Study on Consumer Preference Typologing toward Sharing Economy Service Models Based on Collaborative Consumption: A Strategic Approach to Marketing Communications.” *Journal of Human Subjectivity*, 27: 23–40.
- Kim, Ki–Yeon. 2014. “A Study on Typologing the Korean’s Perception Schemata on the Business Value of Sharing Economy.” *Journal of Human Subjectivity*, 29: 99–119.
- Kim, Kyung–Ho. 2016. “Sharing Economic Services opening the fourth industrial era.” *STSS Conference on Sustainable Science*, 137–139.
- Kim, Mook–Han. 2014. “Urban government and sharing economy.” *The World and Urban Integration Issue 1&2*, 32–44.
- Kim, Yoon–Kyung. 2014. *Study on the one source multiuse platform model directions by consolidation of culture contents : focusing on the design contents information network system*. Ph. D diss. KOOKMIN University, Korea.
- Kim, Young, Kun Kim, Hyo–Jung Oh, Dong–Min Yang, Hee–Jung Han, Tae–Yeon Park, Tae–Kyung Kim and Ju–Yeon Gang. 2017. *A Study on Establishment Strategies toward the Future Librar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eoul: National Library.
- Ko, Yun Seung. 2014. “A Study on Sharing Economy of the ICT development.” *The e-Business Studies*, 15(6): 77–100.
- Koh Young–Sam and Yong–Wan Cho. 2007. “The Roles of Public Libraries in Solving the Dysfunctions of Information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4): 29-48.
- Kwon, Ae-Ran. 2013. "Growth Prospects and Implications of the Sharing Economy with the Development of IT Business." *KDB Industrial Bank*, 73-87.
- Lee, Jung-Won. 2016. *A study on factors that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sharing economy platforms : focus on IT's role*. M.A. thesis. Korea University, Korea.
- Lee, Kwang-Hoon. 2014.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Parking Lot in Neighborhood Facilities by the Common Stock." *Policy report*, (174): 1-18.
- Lee, Seong-Yeob. 2016. "The necessity of government regulation to sharing economy focused on vehicle sharing and accommodation sharing." *ADMINISTRATIVE LAW JOURNAL*, (44): 19-41.
- Nam, Tae-Woo. 2016. *Library*.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Noh, Younghee and In-Ja Ahn. 2012. *The Green Libraries*. Seoul: The Goodwriting Publishing
- Noh, Younghee. 2015. "A Study on Developing the Evaluation Items for the Green Libraries Cert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3): 99-130.
- Noh, Younghee. 2016. "A Study on Applying the Sharing Economy to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3): 75-98.
- Noh, Younghee. 2017. "Research on Development of Social Value Evaluation Indicators for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2): 181-214.
- Park, Ok Nam, Jeong-Mee Lee, Kyung-Jae Bae and Sung-Jong Cha. 2017. A Study on Future Direction and Improvement of Services for National Library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4): 269-299.
- Park, Ok Nam. 2018. "A Study on the Changes of Libraries and Directions of Librarian Educ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1): 285-311.
- Park, Seong-Woo and Woo-Kwon Chang. 2009. "A Study on Social Capital and the Social Impact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2): 215-231.
- Park, Tae-Yeon, Ju-Yeon Gang, Yong Kim, Tae-Kyung Kim and Hyo-Jung Oh. 2018. "A Study on the Librarians' Perception about the Future of Libraries in the era

-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1): 203–229.
- Pyo, Soon-Hee and Dong-Youl Jeong. 2008. “A Study on the Method of Measuring the Economic Use Value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2): 209–234.
- Pyo, Soon-Hee, Young-Man Ko and Wonsik Shim. 2011.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Public Library’s Use Valu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323–341.
- Pyo, Soon-Hee. 2006. “A Study on the Measuring of the Economic Value of a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2): 243–261.
- Rha, June Young. 2014. “The sharing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s: a WOZZOO case.” *Journal of Korea Service Management Society*, 15(4): 107–124.
- Shim, Su-Jin. 2016.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affecting intention to use of sharing economy services.” *The Journal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16(4): 163–183.
- Shin, Eun Byeol. 2016. *A study on the analysis of spatial typology for sharing space based on sharing economy : focus on the connection of management, function, space character of Sharing Space*. M.A.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 Stephany, Alex. 2015. *Business of sharing : making it in the new sharing economy*. Seoul: Hansmedia.
- Sung, Joon-Ho. 2013. “Key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Sharing Economy Services Firms”, *Monthly Shinhan Review*, March 2013, 14–17.
- Yang, Hee-Dong. 2014. “Sharing Economy Business Model and Future Prospects.” *Advertising Information Center(ADIC)*.